이베로아메리카 제4집(2002년)

라스 까사스와 세뿔베다의 인디오에 대한 논쟁

나 송 주*

시작하는 말

1550년 라스 까사스와 세뿔베다 사이의 논쟁은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을 양분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바야돌릳에서 소집된 국무원에서 판사들을 앞에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오들의 존재와 그 실체, 그들의 기독교 수용 과정, 그리고 그들의 유럽 문명을 획득하기 위해서 취했던 태도가 어떠했는지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스페인과 아메리카 대륙을 뜨겁게 달구었다. 라스 까사스는 스페인의 유명한 인문주의자인 세뿔베다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상대방에 반박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뿐 아니라 교회 신부들을 예시하고 역사에 기록된 방대한 내용을 인용하기까지 했다.

이는 스페인의 인디오 정복에 대한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논쟁이었다. 인디오에 대한 정복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세뿔베다는 그 근거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들었다. 그는 인디오들은 사람과 짐승의 중간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인디오에 대한 식민화를 반대하고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스 까사스를 필두로 한 이들은 기독교적인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인디오들의 사회와 문명을 보호하려고 시도했다.

---

*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두 입장을 대변하는 세뿔베다와 라스 까사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인디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스페인의 중남미 과정에서의 정치적 지배나 경제적 수탈만이 아니라 인디오들 고유 문화의 말살, 정신적인 예속화, 스페인의 종교, 정치제도, 사회로 제도화하는 과정의 합리화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스페인은 문명을 가진 질서 잡힌 세계, 인디오들은 야만성과 수성을 가진 지역으로 대별하여, 전자가 후자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배논리로 사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론

콜롬부스는 라 에스빠뇰라 (La Española)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착한 야만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인디오들과의 실제 경험은 이러한 낙관적인 예측을 뒷받침 해주지 못했다. 콜롬부스의 첫 전기 작가인 아고스띠노 히우스띠니아니(Agostino Giustiniani) 주교는 새로 발견된 땅을 '실질적으로 새로 발견돼 카톨릭 교회에 합병된 신세계'로 언급했다. 몇몇 스페인 사람들은 이들 인디오들이 실제적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그들과 똑같은 인간은 아니며, 때문에 기독교도가 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몬테시노스 신부는 이들 인디오들이 과연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말할 능력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페인 사람들의 인디오에 대한 잔혹한 행위와 탐욕을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의와 금과 은에 대한 야심 사이의 갈등을 공공연히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국토재정복에서처럼 아메리카에서도 영지를 받은 스페인 사람에게 인디오가 할당되었고, 이들에게 기독교의 교육을 시키는 책임이 지워졌다. 이

러한 현상은 신대륙에서 만의 특징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스페인 본토에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이 견지하는 중세의 연장, 즉 이사벨과 페르난도의 정책과 신세계의 복음전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치와 종교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없었던 이 시기에, 정치적인 정복은 종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경의 확장은 종교적인 확장을 의미했으며 또한 그것은 정치적인 기반확립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이런 전략은 과오이고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었다. 이들의 생각은 중세의 종교시대 정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화 정책을 신대륙 아메리카의 발견과 동일선 상에 놓고 서로를 혼동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모로에 대한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의 전쟁과 이교도의 추방과 개종을 부르짖는 기독교화 정책 사이를 혼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수도사들이 인디오들에 대한 개종 작업에 참여했고, 그것을 그들의 위대한 업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 대해 신세계로 건너간 정복자들이 모두 공감하지는 않았다. 베르날 디아스의 고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판단해보면, 정복자 일부만이 개종작업을 위대한 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정복기 초기 스페인 왕들의 관심은 그들의 경제적인 팽창에 있었으며, 자연히 신대륙의 정복은 경제적 부를 축적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식민지화거나 이태리식의 중상주의에 바탕을 둔 체제였을 것이다. 사실 스페인은 모로인들에게 탈취한 전쟁 전리품에 바탕을 둔 경제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고, 이런 경제체제를 아메리카에서 그대로 되풀이하려 했다. 그래서 리차드 코네츠케는, 왜 아메리카의 정복자들이 중세 때의 국토재정복 때처럼 국경도 없는 들판으로 달리던 정신으로 신대륙을 정복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하면, 바다 저 건너 지역에서 오로지 창끝으로 부를 획득하는 전략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모로땅에서 했던 것처럼 물건을 약탈하고 여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인디오들의 행복 즉 평화적인 종교의 개종이 결코 아니다.

정복기 초기 동안의 스페인 사람들이 인디오들에 행했던 태도는 라스 까사스의 경험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가 니꼴라스 데 오반도(Nicolás de Ovando) 탐험대의 일원으로 라 에스빠뇰라 섬에 머무는 동안, 단시일 내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 신세계 탐험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비교해 더 관용적이라든지 인간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의 *인디아의 역사(Historia de las Indias)*[1]란 책에서 라스 까사스는 어떻게 인디오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했고, 동시에 그의 광산과 경작지에서 일할 인디오 노예들 어떻게 얻게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큰돈을 벌게 된 과정을 밝힌다. 몬떼시노스가 설교에서 꾸짖은 말들은 그를 그렇게 마음 조이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몬데시노스 신부가 설교를 한 지 일년이 되던 1512년, 쿠바 정복에 참여해서 땅과 엔꼬미엔다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스 까사스는 신부-기사의 역할을 계속했는데, 1514년 도미니크 교단의 신부는 그가 노예를 소유한 것을 알고 성사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그 이후 라스 까사스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1514년부터 그는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고 급기야 1515년 영지를 포기하고 인디오들 보호하고 변호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1547년, 라스 까사스는 멕시코의 치아빠스 지역의 주교를 끝으로 반세기 동안 인디오들과 지내던 삶을 정리하고 73세의 나이로 바야돌릳으로 돌아왔다.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기간 동안, 라스 까사스는 '*진정한 종교로 모든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유일한 방법(Del único modo de atraer a todos los pueblos a la verdadera religión)*[2]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인디오들을 개종하는 유일한 방법은 군인이나 무력의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

1) Bartólome de las Casas, Historia de las Indias, edicion de Juan Pérez de Tudela y Emilio López Oto, Madrid, B.A.E., XCV Y XCVI, 1957

2) Bartólome de las Casas, Del único modo de atraer a todos los pueblos a la verdadera religión, edición de L. Hanke y Agustín Millares Carlo, 1942, p. 181.

인 설득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1547년 스페인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인디오에 대한 논쟁을 위해, *바다 다른 편에서 발견된 신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험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반대하는 방어(Defensa en contra de los perseguidores y calumniadores de las gentes del Nuevo Mundo descubierto del otro lado del mar)*[3]라는 논문도 준비했다.

1500년까지는 카톨릭 왕들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인디오들에게 노예로서의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허용했다. 1512년 공포된 부르고스의 법(Leyes de Burgos, Muro Orejón판)은 이때 당시 풍습과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 인디오들에게 채찍질하거나 때리거나 개라고 불러서는 안되며 그들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정복이 진행됨에 따라, 스페인인들은 그들 문화, 피부 색깔, 종교적인 사상과 도덕적인 가치들이 다른 인디오들도 만나면서 과연 이들을 기독교화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정복기 초기 50년 동안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오들을 '더러운 개'라고 보는 시각과 '착한 미개인'이라고 보는 시각사이에 충돌이 시작되었다.

정복 초기부터 인디오들의 진짜 본성에 대한 의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디오들이 그들 책임 하에 살수 있는가와 부르고스 법이 정한대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없고, 아주 거친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게으름 피우고, 옷을 안 입고, 춤만 추고, 거미와 뱀을 먹고, 마법을 믿고, 술에 취해서 사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520년 까를로스 왕은 이들이 자유인이고, 있는 그대로 다뤄져야 하고, 예수가 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3) Lewis Hanke, La Huimanidad es Un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mónica, 1974, p.102에서 재인용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오들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다. 오비에도(Oviedo)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세뿔베다는 인디오 칙무원 앞에서 격렬하게 인디오들을 공격했다. 그에 의하면, 인디오들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종족이다:

> "배울 능력이 부족하고. (...) 인간들의 예술이나 산업을 실행할 능력이 없고. (...) 10살 내지 12살 때 조금 문명화되지만, 나중에는 야생 짐승처럼 돼버린다. (...) 하나님은 결코 악으로 가득 찬 종족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 인디오들은 당나귀보다 더 바보들이고 어떤 형태의 진보도 거부한다"[4]

이러한 논쟁은 식민지인 멕시코에서도 그대로 재연된다. 정복자들은 아즈텍과 마야 문명을 직접 보고, 용감한 전사들과 기념비적인 도시들, 인상적인 종교의식을 체험한다. 이지역 인디오들은 라 에스빠뇰라와 카리브 해의 인디오들과는 다른 종족들이다. 베르날 디아스는 처음 떼노치아들의 유적지를 보고 할말을 잃을 정도였다.

인디오들의 능력과 그들의 진정한 본성의 문제는 계속되는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이 논쟁은 1542년 '새로운 법'의 공포와 함께 더욱 뜨거워졌고, 이 법에 의해서 1545년에는 엔꼬미엔다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법에 포함된 몇몇 조항들은 인디오 지지자들로 하여금 큰 환영을 받았다.

먼저 라스 까사스는 *바다 다른 편에서 발견된 신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험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반대하는 방어*에서 인디오들은 야만인도 바보도 지능이 빈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의 확고한 의견을 표명했다:

> "수공예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 뛰어난 재주가 있고 세상에 알려진 모든 나라들보다 우수하다. 무엇을 건축하고 만드는 예술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의 건축물, 그림, 그들이 직조한 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뿔베다는

4) La Humanidad es Una, p.157에서 재인용

> 이런 것들이 발명, 재능, 노동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그들의 기술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폄하한다. 그러나 공예는 지능을 다루는 재주이다. (...) 그들의 솜씨는 모든 나라에서 감탄하는 것으로, 세련된 작업을 가능케 한다. 왜냐하면 이런 작업들은 인간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5]

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라스 까사스는 세뿔베다와의 논쟁과 *바다 다른 편에서 발견된 신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험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반대하는 방어*를 통해서 인디오들의 무능력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인디오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교리에 의거해 본성적으로 노예로 분류할 수 있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인디오 황제 목떼수마가 정복자 꼬르떼스에게 선물을 하자, 이 정복자는 스페인 까를로스 왕에게 신세계에서 발견한 부의 증거품으로 보냈다. 이것은 브뤼셀에서 공중에게 전시되었다. 라스 까사스는 이 선물들을 보고 극찬을 한다. 라스 까사스는 아래에서의 인용문과 반박하면서 세뿔베다를 계속 공격한다.

> "인디오들은 그들끼리 한데 어울려 수 천년 동안 살면서 그들만의 명예로운 종교를 믿었을 것이고 종교와 도덕적인 면에서 이루었던 진보 뿐 아니라 그들 본성과 근면성을 알고 있다"[6]

라스 까사스의 기본적인 논조는 모든 야만인들이 본성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노예도 아니거나 통치될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만인들 중에도 정의와 자연에 따라서 통치되는 영토, 사법제도와 좋은 법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 사이에 통치의 정당한 형태도 가지고 있다. 아메리카의 인디오들은 이런 종류에 속하는 야만인이라고 주장한다:

---

5) La Humanidad es Una, p.101에서 재인용
6) 상기서, p.101에서 재인용

> "한 사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왕들, 판사들 법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나라의 법들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많은 왕국들이다. 세뿔베다는 악의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대한 무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혼동하고 빠뜰어져서 말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날조해서 말한 것은 아닐지? 그들이 카톨릭의 믿음과 성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실 인디오들이 야만인 것은 통치될 능력이 없고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비인간적이고 짐승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 우정을 유지하고 부계 가족을 중심으로 모이고, 평화시에도 전쟁시에도 모든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도시에 밀집해서 살고 있다".[7]

계속해서 책 끝 부분에서 라스 까사스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 "인디오들은 우리들의 형제이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비인간적인 야만적으로 그들을 박해하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가르쳐야 하고, 그 점은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바보도 야만인도 아니고 본성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온건하고, 수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8]

또 *아메리카 전복에 있어서 정의를 위한 투쟁(La Lucha por la justicia en la conquista de América)*[9]에서 그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사람들의 좋은 자질을 무시하고 나쁜 점은 과장하고, 덕과 종교의 능력이 없는 사나운 짐승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중대하고 위험한 환상과 과오로부터 우리 스페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이다."[10]

---

7) 상기서 p.101에서 재인용
8) 상기서, p.103에서 재인용
9) 상기서, p.105에서 재인용
10) 상기서, p.105에서 재인용

1519년 라스 까사스는 바르셀로나 궁정에서 왕과 대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본성적으로 노예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인디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이 때 그가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1550년 다시 세뿔베다에 대해 논쟁을 한다.

라스 까사스는 *바다 다른 편에서 발견된 신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험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반대하는 방어*라는 논문 서두에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집단으로 처형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격을 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무기도 없고 어떤 인간적인 방어의 수단도 갖지 못한 비공격적이고,. 무지하고, 온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도 이런 식의 전쟁이 허용될 수 없다"[11]

또한 세뿔베다와 그의 지지자들을 공격하면서, 이들이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모든 생물의 창조자는 신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짐승과 야만스런 사람들로 만들면서, 그들을 야만인, 원시인, 잔혹한이라고 부른다. (세뿔베다의 지지자들이 이들을 생각하거나 상상하고서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사실 이들 모두 다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의 설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12]

그러면 세뿔베다가 인디오들이 야만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그는 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야만적인 상태로 살고 있으므로 이런 조건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라스 까사스 그렇게 막연한 의미로 '야만인'에 대해서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라스 까사스가 주

11) 상기서, p.102에서 재인용
12) 상기서, p.103에서 재인용

장하는 인디오의 야만성에 대한 부정을 위한 '야만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그들 행동이 거칠기 때문에 야만족이다라는 주장에 라스 까사스는 그들의 거친 행동을 야만적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들은 그리스, 라틴만큼이나 발전된 상태로 살고 있으므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배격했다; 2)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문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만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라스 까사스는 그런 사람들은 한정된 의미에서만이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본성적인 노예로서 묘사한 계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스 까사스와 동시대인 또는 후세의 전도사들은 인디오 언어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주장했다. 도미니크 수도사인 도밍고 데 산또 또마스(Domingo de Santos Tomás)는 페루의 인디오들의 언어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들 언어에 대한 문법책을 출판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적으로 야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다: 두려워할 법도 없고 그들 사건을 조정할 수단도 없고, (...) 야생 짐승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진짜 야만인이라 부른다. 이런 종류의 야만인(또는 정확하게 야만)들은 세상에서 아주 드물다고 반박한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당신의 꿈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온 우주에는 충만한 지혜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의 지혜는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이성적인 자연이라는 완성을 향해서 간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대부분은 야만인으로 가득 있다는 세뿔베다의 말은 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말과 같음을 의미한다.[13] 또한 라스 까사는 *모든 민족을 진정한 종교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세뿔베다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지식과 타고난 재

13) 상기서, pp.111-112에서 재인용

> 능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재주가 없고, 바보이거나 멍청한 민족, 국가, 종교, 국가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14]

또 이런 야만인들에게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인디오들은 이런 종류의 야만인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세뿔베다는 인디오에 대한 태도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 "신중함, 재능과 덕의 측면에서 이들은 우리 스페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어른과 어린이, 남자와 여자를 비교한 것처럼 열등하다. 잔혹하고 짐승 같은 사람과 자비로운 사람, 무절제와 절제를 아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원숭이와 인간의 정도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15]

그는 인디오들이 공예 작품을 만드는데 일면 재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짐승, 새와 거미도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인간들도 따라 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인디오를 경멸한다. 그의 인디오에 대한 폄하는 다음 글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 "어떤 점에서는 이성적으로 살고 있고 몇몇 종류의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본능적인 필요성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단지 그들이 곰도, 원숭이는 아니다는 점과 이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불경스러움과 어리석음으로 감염된 야만인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인정 많고, 공정한 카톨릭 왕인 페르난도에 의해 정당하게 정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16].

세뿔베다는 인디오들의 문화는 스페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는 관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바야돌릳에서 논쟁이 있은 지 몇 년 후, 펠리페 2세에게 바친 정치적인 논문에서도 인디오에 대한 전쟁의 정당한 이유를

14) 상기서, p.167에서 재인용
15) 상기서, pp.112-113에서 재인용
16) 상기서, p.113에서 재인용

다시 주장한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철학자들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나라에 대해서 문명화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들이 짐승과 비슷한 야만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악마에게 인간을 희생시키고, 사람 고기를 먹고, 남편이 죽었을 때 여자들을 산채로 매장시키는 등의 범죄들은 문명화된 사람들에게는 듣기조차 끔찍하다"[17].

계속해서 세뿔베다는 스페인이 이들에게 가져다 준 수많은 혜택들을 일일이 들면서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인디오들은 스페인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해, 라스 까사스는 이런 그의 의견을 공격하면서 인디오들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고 규정짓고, 그를 인간에 대한 숙명적인 적으로 공격한다. 그는 명망이 있는 신부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빠울루스 호비우스 같은 작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은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세뿔베다를 공격한다.

세뿔베다의 두 번째 주장은 인디오들은 자연법에 반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인디오에 대한 전쟁은 그들 신에게 사람을 희생시키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연법에 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벌로서 정당화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라스 까사스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 "모든 처벌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진다.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오에 대해서 사법권이 없고, 그러므로 처벌할 수 없다. 기독교 영토에서 살았던 유태인, 마호메트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사법권 아래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있지 않다. 스페인 중세 때에도 신하들에게 예배와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자유가 허용되었고, 1492년까지 이사벨과 페르난도 왕들도 그라나다에서 모로인들이 그들 이슬람 종교를 믿으며 스페인에 머물도록 허용했었다. 기독교 영토 밖에 살았던 유태

17) 상기서, p.114에서 재인용

> 인, 마호메트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교회나 기독교 왕의 사법권 아래 있지 않았으므로 자연법을 어길 수 있었다".[18]

또 기독교 영토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자들은 교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 증거로 댔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단지 우상숭배라는 이유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 맥락에서 라스 까사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최소한 인디오들의 경우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무지는 용서되므로 유태인이나 아라비아 사람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다. (...) 기독교가 지배하는 영토 안에서 사는 유태인들한테도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는데, 교회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광활한 영토에서 살고 있는 우상숭배자들은 더욱 더 처벌할 수 없다."[19]

결국 그의 의견은 기독교 영토 밖의 나라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나 男色일지라도 그렇게 소름끼치는 범죄는 없는 것이며, 이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며, 참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이교도도 교회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안되고, 더욱이 범죄나 미신이 아무리 혐오스럽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독교도 통치자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은 더욱 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 째 세뿔베다의 주장은 인디오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라스 까사스는 세뿔베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다. 세뿔베다에 의하면, 인디오들은 그들 신에게 희생물로 바치기 위하여 또는 그들 신체를 먹기 위하여 죄 없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죽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디오에 대해서 무력 개입은 우리들 모두가 따르는 자연법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18) 상기서, pp.117-118에서 재인용
19) 상기서, pp.114-115에서 재인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잡하고도 예민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서 프란시스꼬 데 빅또리아 같은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수용했다. 그러나 라스 까사스는 인디오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 신을 위해서 인신 공양을 행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행위들은 스페인의 사법권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20]

한마디로 말해, 라스 까사스의 논지는 오래 전에 하나님이 유태인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을 신세계의 인디오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신의 모든 심판이 우리들에게 적절한 예시가 되는 아니다라는 말이다. 엘리아 선지자는 그에게 대머리라고 놀렸던 42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그들을 곰으로 하여금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했다.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모방해야 한다면,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심각한 죄를 범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라고 반박한다. 라스 까사스는 교회가 이단자들에 대해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정된 경우 몇 가지를 제시한다: 1) 이단자가 교회와 기독교 군주의 신하일 때; 2) 교회나 기독교 군주가 사실상의 사법권을 갖고 이교도들에 대한 사법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이다.[21] 그러나 인디오들은 위의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교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간을 제물로 희생시켜 인육을 먹는 경우를 알았다고 상정해보자.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르고 선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들 잘못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침략해서 어떤 경고도 없이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 인정될 수 없다. 먼저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야 할 것이다. 또 인디오들에게 이들의 잘못된 풍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낸다면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라틴어,

---

20) 상기서, pp.119-120에서 재인용
21) 상기서, p.120에서 재인용

그리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에서 선택할 수 는 없다. 인디오들은 이런 어떤 언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인들이 이런 언어들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학식이 풍부하지도 못하다. 아마도 인디오들을 이해시킬 정도로 이들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디오들이 이성을 되찾고 범죄행위를 그만두게 하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마 그들 스페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이해하고 인신 공양은 자연의 법칙에 반대되는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인신 공양의 주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라스 까사스는 그런 행동 때문에 인디오들이 '개연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신 공양을 하는 인디오들을 비난하고 있는 스페인 사람 자신들도 옛날에는 포로와 그들 말을 희생시키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옛날 풍습은 근절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다음 4개의 원칙을 설정한다: 1) 어떤 나라도 그들의 야만성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혼돈된 어떤 지식을 갖는 나라는 없다; 2) 인간의 성향으로 볼 때, 그들 능력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를 위해서 봉헌해야 한다; 3)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형식은 없다; 4)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 인간적인 법과 현실적인 법령의 물질인 반면, 진짜 하나님에게 희생을 바치는 것은 자연법이다."[22] 라스 까사스는 이런 원칙에 근거해, 이교도의 종교에 있어 선의를 인정하고서, 이교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생명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으므로 인신 공양과 우상숭배까지도 자연스런 행위로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어느 누구도 그와 비슷한 관점을 취한 사람은 없었다. 그의 동시대인들은 라스 까사스가 이교적인 것과 비슷한 것을 설교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인디오들의 종교적인 믿음은 그들에게는 유효하고 그 시대에

22) 상기서, p.124에서 재인용

는 무신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다. '무력과 칼'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 종교와 문명을 인디오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시도하는 스페인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 감정보다 인디오들을 더 평가하는 그의 관점이 더욱 더 합리적이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라고 요구한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인신 공양은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뿔베다의 네 번째 주장은 기독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목적으로 이교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라스 까사스는 *인디오들의 멸망에 관한 간략한 관계(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23]를 통해서,

> "복음의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성서 문학의 몇몇 구절을 인디오에게 행한 전쟁에 대한 정당성의 구실로 삼는 세뿔베다와 그의 지지자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이들은 복음과 죄의 사함을 무기와 포격, 전쟁의 힘으로, 무력으로 행하며, 결국 한 나라를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스페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도 평화적인 인간도 아니고 악마의 자식들이다."[24]

다시 말해서, 예수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무기를 주지도 않았고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슬람교도들이 그들의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대학살과 공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도들 자신도 그것에 대한 모방행위를 하고 있다. 라스 까사스는 세뿔베다가 산 그레고리오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그레고리오는 옛날에 기독교도들의 사법권 아래 있었던 지역을 다시 되찾을 목적으로의 전쟁을 지지했을 뿐이다. 세뿔베다가 인용한 산 아구띤과 산또 또마스 데 아끼노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

23) Bartólome de las Casas,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B.A.E. CX, Madrid, 1958

24) La Humanidad es Una, pp.127-128에서 재인용

>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재능과 정의의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였으며, 그들은 정의감으로 세계를 복종시켰다"[25].

이에 대해 라스 까사스는 세뿔베다가 주장하는 정복논리에 대한 합리화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즉, 하나님은 로마인들에게 로마인들을 분노하게 한 죄인들만을 정복하고 죽이도록 허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몰락했다고 설명한다. 로마인들이 저지른 폭정은 소위 정복이라 불리는 인디오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폭정을 정당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마치는 말

여러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호 바라보기와 교류는 기존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기본 요소이다. 상호간의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한가지 문화와 가치만으로 통일을 시도하는 한,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차이는 우열관계로, 다양성은 단일성으로 각각 단순화되어 해석된다면, 인디오들의 문화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배자였던 스페인사람들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문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이상화를 인디오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디오는 자신들과 다른 존재, 즉 타자일 뿐이었다. 또한 기독교로의 개종작업은 문명인인 그들에게는 일종의 의무였다.

이런 의미에서, 라스 까사스의 인간적인 주장 역시 엄밀하게 따진다면 식민주의의 지배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라스 까사스와 세

25) 상기서, p.131에서 재인용

뿔베다는 인디오들을 기독교화 시키는데 있어서의 방법론에 그 차이를 두고 있을 뿐, 기독교로의 개종에 대한 찬반론으로 대립되지는 않았다. 즉, 양자 모두 인디오들을 개종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이 목적은 다르지 않았다. 세뿔베다의 주장은 인디오들을 지배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타당성 획득을 위해 논리의 과장을 시도함으로써 라스 까사스에 비해 설득력이 부족했던 한편, 라스 까사스의 주장은 보다 인간적인 논리로서 인디오들의 옹호자가 되어 노예제를 폐지를 이끌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양자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종목표는 기독교로의 개종에 대한 타당성이었다. 단, 라스 까사스의 주장은 인디오들이 기독교를 수용할 만한 충분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고자 했을 뿐, 인디오들의 관습 또는 그 외의 많은 문화적 차이점들을 인정하거나 자신들과의 공존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라스 까사스와 세뿔베다의 논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스페인사람들의 인디오에 대한 식민화 과정에서 저명한 교회 성직자들의 가르침과 의견에 대한 진의와 올바른 해석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 팽창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Bataillon, Marcel y Saint-Lu, André, El Padre las Casas, defensor de los indios, Barcelona, Ariel, 1976.

Beneyto Pérez, Juan, Cines de Sepúlveda humanista y soldado, Madrid, Editorial nacional, 1954.

De las Casas, Bartolomé, Historia de las Indias, Juan Pérez de Tudela y Emilio López Oto, Madrid, B.A.E., XCV Y XCVI, 1957.

_____, Del Unico modo de atraer a todos los pueblos a la verdadera

religión, edición de L. Hanke y Agustín Millares Carlo (traducción castellana de Atenógenes Santa María), México, F.C.E., 1942

_____, Defensa en contra de los perseguidores y calumniadores de las gentes del Nuevo Mundo descubierto del otro lado del mar, Madrid, B.A.E., 1958

_____,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editado por Ángel Losada, B.A.E., CX, Madrid, C.S.I.C., 1958.

González Rodríguez, Jaime, "La ética del conquistador en el <<De Orbe Nove>> de Sepúlveda", Revista de Indias, vol. 47, 1987, 9-12, n ° 187, Madrid, C.S.I.C.

Hanke, Lewis, La Humanidad es un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74

Iñago Madrigal, Luis(coordinador),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Tomo I, Madrid, Catedra, 1992.

Pérez de Tudela Bueso, Juan, Significado histórico de la vida y escritos del Padre Las Casas, Madrid, B.A.E., XCV, 1958.

Sepúlveda, Juan Gines de, Epistolario(primera traducción castellana del texto original, introducción, notas e índoces por Ángel Losada), Madrid, ediciones cultura Hispánica del Centro Iberoamericano de cooperación, 1979.

<Resumen>

Estudio acerca de la Querella entre Las Casas y Sepúlveda

La querella sobre la capacidad intelectual y religiosa de los indígenas americanos fueron sostenida en 1550 por Bartolomé de Las Casas y Juan Ginés de Sepúlveda. El tratado que Las Casas leyó ante los jueces del consejo real convocado en Valladolid aquel año estaba íntima a saber: qué clase de seres eran los aborígenes americanos y qué aptitudes tenían para convertirse a la religión cristiana y adquirir la civilización europea. Ya el título de la obra *Defensa contra los perseguidores y calumniadores de las gentes del Neuvo Mundo descubierto del otro lado del mar*, que Las Casas escribió después, dándole una forma definitiva y con la cual creyó demoler los argumentos de su oponente, el erudito renacionista Sepúlveda, indica su principal objetivo.

En este estudio tratamos de la agria disputa sobre los indígenas americanos, la cual sostenieron Las Casas y su oponente refiriéndose a sus diálogos concretos. Las Casas como un defensor humanista de los indígenas, mientras Sepúlveda declaró sus antiguas hábitos de holgazanería, desnudez, creencia en brujos, ebriedad, etc. También aquí ponemos de relieve la dicotonomía de salvaje y civilización, la cual los españoles utilizaron para governar a los indígenas americanos y con la cual aquéllos se consideraron superiores a éstos.

El amargo pleito de Valladolid no produjo evidentemente ninguna desición absoluta. Pero lo que parece cierto y común en la querella

entre ellos sería: no sólo Las Casas sino también Sepúlveda tomaron por sus bases teóricas la dicotonomía de salvaje y civilización para convertir las religiones indígenas en la cristiana y justificar sus colonización del Nuevo Mundo durante la expansión de Europa.